

안개의 도시

여름에 태평양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여 홋카이도 동부의 더 시원한 해안선에 도달하면 안개가 끼게 됩니다. 구시로는 여름에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 ‘안개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시로는 주요 항구인데 시야가 좋지 않으면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이유로 1891년에 구시로자키 등대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등대에는 안개가 발생했을 때 경고음을 내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22년 7월 황태자 히로히토(1901~1989년. 후의 쇼와 천황. 천황 재위 기간은 1926~1989년)가 짙은 안개가 낀 때 구시로를 방문했는데, 이때 등대에 무적(霧笛)을 설치하도록 구시로시에 권유했습니다. 무적(霧笛)은 192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나팔 모양 부분은 ‘취명기’라고 불리며, 압축된 공기를 증폭시켜 저주파수 경고음을 냅니다. 취명기는 1962년 전기식 취명기로 교체되었지만 이것도 201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배의 항해 설비의 발달로 무적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